



## 평가와 전략이 모이는 '선교 포럼'의 계절

선교계는 지금 연말을 앞두고 선교 포럼과 대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아시아 지역 선교대회 '아시아 2022 콩그레스'가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최측은 참여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전년도 발제 및 논찬 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주 내용은 '서양에서 다수세계(Majority World)로 이동하는 교회 무게중심의 동향'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발제자 비숍 화융(Hwa Yung)은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중동 등 다수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로 여겨졌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교회는 다수세계 전역에서 확장했다"고 말했다. 논찬자였던 린제이 브라운(Lindsay Brown)은 "지난 100년간 복음주의 교회는 큰 변화를 맞았다"며,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참가자의 95%가 서구 교회 출신이었던 과거와 달리,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로잔대회의 참가자는 198개국 중 65%가 다수세계 출신, 35%가 서양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2022 콩그레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 기독교의 흐름 변화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주목했다. 비숍 화융은 이러한 논의가 "서양교회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다수세계 교회의 성장만 강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시아 교회 앞에 놓인 도전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복음이 아시아의 맥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 이하 GCF) 국제위원회 및 아시아 지역교회 모임이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에서 열렸다. 모임의 주제는 "다중 신앙 맥락에서의 신앙심(Faithfulness in a Multi-faith Context)"이었으며, 주요 논의로 '아시아 맥락에서의 기독교'가 예외 없이 다뤄졌다. 본 모임은 2024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될 4차 GCF 대회를 위한 아시아 지역 협의의 일환이었다.

비숍 조지 쿠릴로스(George Corilos)는 모임 발제에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도전하는 일은 모든 기독교인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이며, "아시아는 여러 종교 간 충돌의 장소인 동시에 다원주의적 기풍과 문화가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종반대법을 예로 들며,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하고 바꾸기도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다수세계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개최되었거나 개최를 앞둔 각종 기독교 포럼 및 대회가 공통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이주민'이다. 이주민의 이동이 북반구 교회와 남반구 교회의 선교적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지형을 바꾼 것이다. 이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세계선교의 방향성에 불꽃을 트고 기독교 선교의 좌표를 새롭게 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11월에 연거푸 열리는 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는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리며, 포럼의 주제는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다.

11월 7~9일에는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가 주관하는 이주민 포럼이 오륜교회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KIMA는 포럼을 통해 실존하는 단체 및 사역자들과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이주민선교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근 30년 동안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국제이주기구 통계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전 세계 이주민이 4억을 넘고 국내 이주민 인구도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문화권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이주민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제이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11월을 맞아 국내외 포럼에서 다뤄진 이주민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 2024년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

한국 준비위원회 의장 유기성 목사·총무 문대원 목사 위촉



▲ 2024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됐다.

오는 2024년 로잔운동 반세기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2년여 앞두고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 준비위원회 의장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총무는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섬긴다.

10월 22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 '2024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2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에 앞서 방한한 국제로잔 리더십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교계, 선교계, 학계, 전문인 및 청년 지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최형근 교수의 사회로 박천중 목사의 찬양, 한국로잔위원회 이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의 대표기도 후 참석자 환영과 소개,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이자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의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고전 3:18~20, 4:9~10)에 관한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목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을 통해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졌다"며 "한국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Fools for Christ)"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목사가 한국 준비위원회 의장 유기성 목사, 총무 문대원 목사,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온누리교회 선교본부장)에 각각 위촉장을 수여한 후, 유기성 목사와 문대원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유기성 목사는 "로잔의 중요한 정신이 겸손함과 정직함, 단순함이다"라며 "주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단순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방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을 이번에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대원 목사는 "여러 나라와 지역과 전통, 교단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

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한국교회가 4차 로잔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전한 국제로잔 대표이자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 마이클 오목사는 "저희가 준비하는 여러 모임과 노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께서 보여주는 겸손함의 귀한 정신을 보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4차 로잔대회에서 특별히 두 가지가 뚜렷하게 보이길 바란다"라며 "먼저 아름다운 글로벌 그리스도의 몸이 그대로 잘 보이길 바란다.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행사는 제4차 로잔대회 영상 상영에 이어 마이클 오 대표를 비롯해 준비위원장인 로잔 협업 콘텐츠 담당 및 글로벌 부디렉터 데이비드 베넷, 참가자선정위원회 공동의장이자 로잔 지역담당 부디렉터 라스 뉴만, 이재훈 목사, 유기성 목사가 로잔대회의 의의와 준비 과정 등을 설명했다. 통역은 스티브 차 목사가 맡았다. 이 시간 이재훈 목사는 특히 이번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인호 목사(더사랑교회)의 기도 및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0개국 출신 약 5천여 명의 글로벌 선교 리더가 모인 가운데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로잔운동의 비전, 곧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적 교회를 세우며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를 세워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게 된다. 특별히 아시아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대회로서, 한국교회가 로잔운동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끌 예정이다. 대회는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대회 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4차 로잔대회의 공동대회장은 이재훈 목사, 마이클 오 목사, 준비위원장은 데이비드 베넷, 부위원장은 최형근 교수, YLGen 팀장 에비 로드만, 느헤미야 프로젝트 유지영 공동대표가 섬긴다. 프로그램위원회 의장은 패트릭 핑, 참가자선정위원회 공동의장은 라스 뉴만, 로잔 일터사역 네트워크 퍼실리테이터 조셉 비자얌이 맡았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KIMA 이주민 포럼 5면

[인터뷰] 샘 조지 박사 8·9면

[이주민 간담회] 프라닐 집사 11면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 조선족 선교의 갈림길... 도착화에서 '분산화'로

"중국동포들이 중국, 북한,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THE문화교회 담임  
FAN전문인훈련원 원장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 강사



글

홍해 목사



▲ 전문인사역자 양성을 위한 FAN전문인훈련원 제빵 수업

나는 디아스포라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던 초기 한국에 입국하여 조선족 사회의 급변을 경험했다. 동시에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한국에 정착하며 사역을 꾸준히 활성화하고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약 80만 명으로, 탈북민이 3만 5천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팔모할만한 수치이다. 이들은 국내 유입 후에 도착화 과정을 겪으며 한국에 동화된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착의 결과가 단순히 도착화로 끝나는 것은 자못 안타깝다. 한국에 온 디아스포라 조선족은 다른 디아스포라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살던 조선족들은 중국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방방곡곡에 조선족교회를 세웠다. 이는 다민족 국가였던 중국에서 소수민족 선교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같은 '소수민족'이라는 신분은 중국 내 여러 소수민족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조선족교회의 선교 열정은 한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많은 한족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점차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선교의 주도권은 넘어가게 되었다.

디아스포라 조선족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국내에도 조선족교회가 점점 늘어났다. 조선족들은 15년 이상 도착화 과정을 겪으며 한국에 정착했기에, 국내 조선족교회 역시 한국교회의 기존 시스템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역은 정착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사역이 그저 도착화에서 그친다면 조선족 선교의 이점은 살리지 못한 채 선교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선교는 도착화 사역에서 '분산화'를 통한 디아스포라 선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나는 중국동포들이 중국, 북한,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호소한다. 중국동포가 이주민의 신분을 가지고 역으로 이주민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중국 선교사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다.

## 1. 전문인사역자 양성

이제는 전통적인 사역방식으로 중국에서 사역하기 쉽지 않다. 간판을 걸고, 주일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활동을 하는 것 모두 제약이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감한 현실에 맞춰 대안이 되는 전문인사역자가

필요하다. 즉,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사역, 학원을 통한 어린이사역, 양로원을 통한 노인복지사역, 문화사역, 비즈니스사역 등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를 중국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신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하여야 한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듯, 신학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사역자를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FAN전문인훈련원을 세워 현재 운영 중이다.

## 2. 평신도일꾼 양성

중국은 현재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인해 목회자에게는 제약이 따르고 종교모임도 인원수 제한이 있거나 불법 집회로 분류된다. 여러모로 목회자 홀로 중국법을 따르며 사역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목회자 양성 못지않게 평신도사역자 양성이 시급하다. 평신도일꾼을 훈련시켜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디아스포라 실천신학 관련 훈련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 3. 다음세대 양성

중국의 종교법상 미성년자는 종교시설에 참여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수많은 교회가 주일 학교를 왕성히 운영해왔다. 중국정부는 이를 그동안 묵인해오다가, 근래에 미성년자가 종교에 접근하는 것을 아예 금지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출생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겪으면서, 미성년의 교육문제에 더욱 예민해진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조선족의 자녀들은 종교활동이 자유롭다. 그들 가운데 중국선교의 미래자원을 준비시켜야 한다. 잊어버린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을 향한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 나는 한국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과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환체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다. 중국어만 하는 중국의 조선족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문화와 한국어라는 민족언어를 체험하게 하고, 한국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은 중국에서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팬데믹 상황으로 중국의 국경이 막히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언젠가 국경이 열리면 이런 교환체험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 '울산 이주민 정착 및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 울산 지역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이주민을 위한 선교대회&세미나 사역보고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협동총무  
KWMA 아프간 커미티  
예장통합 총회파송 인도선교사



글

정용구 선교사

작년 8월,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을 도왔던 아프간인 390여 명이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이송되었다. 이른바 '미라클' 작전이었다. 미성년자 240여 명을 비롯한 입국 대상자들은 대한민국에 무사히 수송되어 '특별기여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인천과 여수에서 6개월 동안 정착 훈련을 받고, 올해 2월부터 9개 지역으로 흩어져 본격적인 한국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한국 교계가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정착에 한 방향으로 협력하도록 힘썼다. 지역사회가 아프간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아프간 이주민을 위한 정착 매뉴얼'을 올해 4월 출간하고, 관련 협력단체에 배포 및 교육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이 일에 더욱 집중하고자 'KWMA 아프간 커미티'를 구성하여 사역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4월, 법무부의 아프간인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울산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29가구를 도울 멘토 그룹을 연결해달라"고 KWMA에 요청했다. 이에 KWMA는 울산지역에서 연합사역을 해오던 울산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울산의

교계 리더십들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현황과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나누었다.

이를 계기로 울산 교계에서는 특별기여자 대상 사역이 개인이나 한 교회에 감당할 일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NGO 담당자들이 합심하여 '다사모(다민족·다문화를 사랑하는 모임)'란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모임의 큰 방향성은 아프간인들이 울산의 시민이 되도록, 아프간 어린이들이 울산의 자녀가 되도록 이들을 섬기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울산 교계가 먼저 앞장서고, 재정과 사역 시스템을 후원하고, 사역을 전문 선교단체의 사역자를 통해 진행하자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다사모 모임은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별기여자뿐만 아니라 이주민 사역에 대한 비전과 울산의 선교적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울산 이주민 정착 및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선교대회&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선교대회는 지난 9월 25일 울산 태화교회(양성태 목사)에서 개최되었고, 세미나는 그다음 날 울산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첫날 선교대회에서는 ①'국내 이주민 선교현황과 전략,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문창선 선교사(위디국제선교회 대표) ②'울산의 선교적 사명 Imago Dei & Hospitality' - 강대홍 선교

사(KWMA 사무총장) ③아프간 특별기여자 현황 - 정용구 선교사(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이후로는 기도 시간이 뜨겁게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①키노트 스피치 - 강대홍 선교사 ②'이주민 정착 및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 - 문창선 선교사 ③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지역 사례 발표 - 울산 명성교회-예수전도단-열방선교교회-다사모 등 ④'아프간 이주민 정착을 위한 이해와 섬김' - 허정훈 선교사-하니프 작가(KWMA 아프간 커미티) ⑤'아프간 이주민 속 마음 알아가기' - 윤주홍 선교사(KWMA 아프간 커미티 위원장) ⑥온누리 M센터 지역 사례 발표 - 박창홍 목사(온누리 남양주 M센터) ⑦'울산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제안' - 손승호 선교사(울산경남 KWMA 사무총장)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이후로는 질의응답과 결의문 작성 및 낭독이 기도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선교대회와 세미나를 위해 KWMA 아프간 커미티는 세 차례 이상 모여서 강의와 발제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또한 현장에 더욱 필요한 발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번 사역을 준비해왔다. 필자는 더 좋은 방법을 나누고자 울산을 방문했지만, 이미 울산의 네트워크와 인프리가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아프간 이주민들을 섬기는 모습에 도리어 도전을 받았다.

KWMA는 앞으로도 울산 교계와 후속작업을 동역하고, 울산의 좋은 연합모형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려고 준

비하고 있다. 또한 안동, 전주, 대전 등과 같이 지역교회의 연합이 왕성한 지역에도 선교 방향성과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와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KWMA 아프간 커미티 역시 멘토 교육을 비롯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위해 기획안을 만들고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등 각각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역이 진행되면서 어려움과 난관도 있었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울산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나 개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연합을 통한 협력이 얼마나 큰 선교적 열매를 이루는지를 목격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프간을 통해 일하실 것과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한다.



▲ 아프간 특별기여자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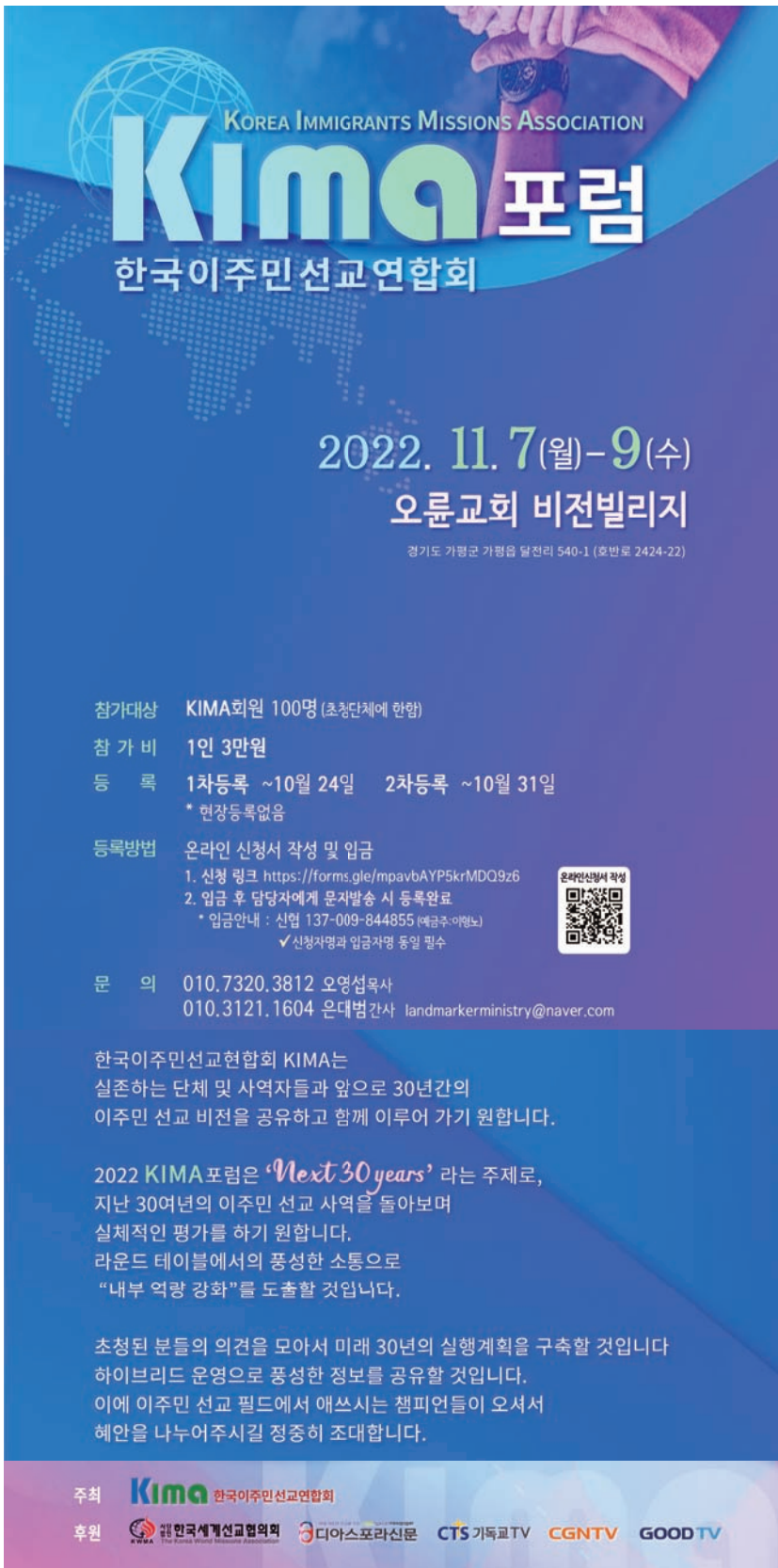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 2022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포럼 개최

'Next 30years'... 지난 30년의 이주민 사역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비전 공유



**Korea Immigrants Missions Association Kima 포럼**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2022. 11. 7(월)~9(수)  
오륜교회 비전빌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천리 540-1 (호번로 2424-22)

참가대상 KIMA회원 100명 (초청단체에 한함)  
참가비 1인 3만원  
등록 1차등록 ~10월 24일 2차등록 ~10월 31일  
\* 현장등록없음  
등록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입금  
1. 신청 링크 <https://forms.gle/mpavbAYP5krMDQ9z6>  
2. 입금 후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시 등록완료  
\* 입금안내 : 신협 137-009-844855 (계좌주: 이형노)  
✓ 신청자명과 입금자명 동일 필수

문의 010.7320.3812 오영섭목사  
010.3121.1604 은대범간사 [landmarkministry@naver.com](mailto:landmarkministry@naver.com)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KIMA는  
실존하는 단체 및 사역자들과 앞으로 30년간의  
이주민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2022 KIMA 포럼은 'Next 30years' 라는 주제로,  
지난 30여년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실체적인 평가를 하기 원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풍성한 소통으로  
"내부 역량 강화"를 도출할 것입니다.

초청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미래 30년의 실행계획을 구축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운영으로 풍성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에 이주민 선교 필드에서 애쓰시는 챔피언들이 오셔서  
혜안을 나누어주시길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최 Kima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후원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디아스포라신문, CTS 기독교TV, CGNTV, GOODTV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사무총장



글

이형노 목사

지난 수십 년간 선교전문가들은 미 전도종족을 향한 다양한 전략을 말 해왔다. 하지만 지구촌의 인구이동은 선교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접근이 어려운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내 이주민 유입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속인(屬人) 선교로의 변화를 도전하였다. 앞으로의 30년은 다양한 이주민들이 역파송을 통해 속지(屬地)선교로 재배치되는 것이 예상된다.

국내에는 이주민을 △정주 및 비정주 △각 종교권의 영역 △지역 등의 기준으로 사역하는 지역교회·이주민선교사·선교단체가 많이 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가고 보내는 전략'에 고착된 선교계에서 묵묵히 이주민 선교에 참여해온 챔피언들이다.

이에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가 실존하는 단체 및 사역자들과 향후 30년의 이주민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이루어 가고자 제1회 2022 KIMA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가평에 소재한 오륜교회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2022 KIMA 포럼의 주제는 'Next 30years'이다. 포럼에서는 지난 30년

의 이주민 사역을 돌아보며 실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내부 역량 강화'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30년의 실행 계획을 함께 세울 예정이다. 개회예배로 포문을 열고, 네 개의 세션으로 발제 및 워크숍이 열린다. 발제는 ①이주민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 ②창의적 접근 방안 ③교회 공동체 ④파송·협력네트워크 순으로 진행된다.

KIMA가 처음으로 자리를 모은 이번 포럼은 국내 이주민선교단체 중 사전 추천된 100여 단체 사역자만 참여 대상으로 한다. KIMA는 차기 포럼에서 참가자 대상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는 국내 이주민선교를 위한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1기를 마치고 2기 임원단이 활동 중이며, 상임대표(문창선 목사) 외 7명의 공동대표(박성규·서기원·류성환·이정혁·이형노·정노화·허은열 목사)를 비롯하여 사무총장(이형노 목사), 분과별 위원장 등 총 20명의 임원들이 교단별 안배를 통해 구성되었다.

KIMA의 대표적인 사역 'Listening Call'은 현재 제6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분기별로 실시되어 이주민선교의 방향 설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열린다...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는 2022년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다.

올해 한선지포의 주제는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다. 코로나 이후 더욱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선교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교회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온 '타겟2030'(Target 2030)의 선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다.

타겟2030 운동은 2004년부터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가 10만 선교사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해 9월 교단 선교부 지도자 모임, 선교단체 대

표 모임 등을 통해 '미래 25년 계획' 수립이 처음 제안되며 시작됐다. 2004년 11월 제4회 한선지포에서는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해 2005년을 성숙을 위한 준비와 기도의 해로 설정했고, KWMA는 2030년까지 비전적 수치로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세웠다.

한편, 한국사랑의봉사단 대표 황성주 박사는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일으키자는 MT2030(Million Tentmaking 2030 Movement)을 제안해 선교계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4월부터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지향적 선교전략 및 협력 시스템을 도출했다.

이후 2006년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17회 총회 선언문에서는

타겟2030, MT2030에 주력하기로 했고, 같은 해 6월 제4차 선교전략회의(NCOWE IV)에서는 타겟2030 마스터 플랜 연구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2010년 제10회 한선지포에서는 타겟2030과 MT2030의 동시 사용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타겟2030 비전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MT2030은 타겟2030의 하부 운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타겟2030의 핵심은 숫자적 목표로 설정한 10만 선교 정병 파송이 아닌, 건강한 한국선교의 국제적 기여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타겟2030 운동은 그 후에도 한국선교계에서 다양한 실행 목표를 세워 계속 추진됐으나, 한국교회와 해외선

교 현장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WMA는 기존 '타겟2030'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4개 세션, 즉 △교회와 선교단체의 시너지 △교회중심의 선교 운동 △이주민과 글로벌 네트워크 △다문화세대(2030세대)의 동원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한선지포에서는 최성은 분당지구교회 목사, 양춘길 필그림선교교회 목사가 선교 메시지를 전하며,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의 주제 설명, 4개 세션별 코디네이터의 키노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1인당 5만 원(숙식, 선물 포함)이며, 숙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일 신청 및 참석도 가능하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 GMS이주민선교연합회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예정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주민선교연합회(이선연)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10월 22일 오후 1시 서울 강일교회(담임목사 정규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주민,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GMS가 주최하고, GMS이주민선교연합회와 강일교회가 공동주관했다.

대회에 앞서 지난 8월 20일부터 1개월간 GMS이주민선교연합회 소속 100여 개 교회 및 단체가 자체 선발한 40명이 1차 예선에 지원, 10월 1일 동영상 심사를 거쳐 6개국 11명이 본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출신 국적은 베트남 3명, 캄보디아 3명, 몽골 2명,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이 각 1명이었고, 신분은 유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결

혼이주 여성이 4명, 이주노동자와 현지 거주자가 각 1명이었다. 이들은 본선 대회에서 각각 '내가 만난 예수님', '코리안 드림'이라는 두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발표한 일본인 유학생 오오와키 카오(서울 강일교회)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캄보디아인 결혼이주 여성으로 '새로운 삶을 갖게 해준 제2의 고향, 한국'에 대해 발표한 찬스 레이니(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우수상은 베트남인 결혼이주 여성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을 전한 김하은(계산교회 다문화비전센터)이 받았다.

GMS이주민선교연합회 상임대표 윤대진 선교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주목적은 이주민들의 전도와 양육을 통한 제자훈련과 사역자 발굴, 그리고 저들이 자기 민족 복음화에 헌신할 사명자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선 대회 심사위원장으로 섬긴 GMS이주민선교연합회 공동대표 최고수 목사는 "참가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좋아 실력 차를 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며 "참가자들의 한국어 수준도 높았을 뿐 아니라, 첫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잘되고 당일 진행도 원만하게 되어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GMS이주민선교연합회 총무 문성주 목사는 "처음으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한국 이주민들의 처한 현실들을 직시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이

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간증이 마치 요셉의 스토리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GMS이주민선교연합회는 국내 장단기 체류 이주민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해 교단 소속 교회와 이주민 사역단체가 연합하여 2019년 창립됐다.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 교회와 이주민 사역단체 사역자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 연합을 이루며, 이주민 선교 정책과 전략을 연구개발하고, 이주민 사역자들의 훈련과 선교비 후원 모금, 지역 교회와 이주민 사역자, 해외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 이주민 사역 매뉴얼 및 관련서적 발간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GMS이주민선교연합회는 내년에도 이주민들을 위한 '제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용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기관



# 디아스포라 선교학: 선교적 지역교회

디아스포라 신문은 정기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10장 '선교적 디아스포라에 속한 지역교회'를 요약하였다.

10장의 저자 엘리아스 메데이로스(Elias Medeiros)는 1975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아마존과 브라질 레시페(Recife)에서 선구적인 교회개척을 이루었다. 메데이로스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역할, 위치, 공헌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는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메데이로스는 전 세계의 지역교회가 따라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디아스포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에 도전을 주는 현상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인구 이동이 많은 현 상황은 구속사와 현대 역사,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선교에서 특히 중요하다.

둘째, 어떠한 지역교회 또는 기독교 기관이든지 간에, 디아스포라 선교 및 지리학 관련 신학에 무관심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실패하고 이를 후회할 것이다.

셋째, 고로 지역교회는 이주민선교를 수행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이주민을 향해,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을 통해 움직이며, 이주민을 넘어서까지(여전히 미전도종족인 사람들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다.

넷째, 지역교회의 전적인 참여 없이는 디아스포라 선교는 성공하지 못한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성공과 지역교회의 능동적인 역할에는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까지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아스포라 선교는 학술적인 분야에 불과하다. 선교적 디아스포라가 성립하려면 지역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역교회의 사명이자 특권이며,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성령의 권능 중심의 본질이다.

## 지역교회와 파라처치 단체들

지역교회의 영적, 개인적,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파라처치(Para-church, 지역교회와 대비되는 개념) 단체들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으며 존속조차 불가하다. 주님께서는 파라처치 단체가 지역교회와 함께, 지역교회를 통해 일하도록 인도하신다.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역해야 한다.

이주민들의 존재를 비추어 볼 때 지역교회의 역할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고 돕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소명과 은사로 이주민을 섬기도록 능력을 부여 받았다. 이주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정서적(상담사), 사회적(사회복지사), 법적(변호사), 신체적, 재정적 필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교회는 교인 중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 사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주님의 구속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흠여지는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으며, 저주받은 백성인 가나안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다.

이처럼 저자는 이주민선교의 중요성을 모든 지역교회에 끊임없이 호소한다. 그렇다면 지역교회는 선교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주민을 섬길 수 있을까?

첫째, 지역교회는 이주민 통계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을 위해 위원회를 모집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지역교회, 독립교회, 관련단체 등 기관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이주민선교에 헌신하는 구성원을 모으는 것이다.

셋째, 이주민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교회 및 단체의 모든 방법, 유형, 도구를 참고하여야 한다. 넷째, 대도시의 교회는 하나의 민족을 대상으로만 하는 교회 대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이 출석하는 선교적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교회는 미전도종족에게 다가가는 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디아스포라 교회개척과 제자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핏계는 어디에도 없다. 지역교회 지도자는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이주민 관련 사역자료와 모형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여섯째,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믿는 이주민과 믿지 않는 이주민 모두와 함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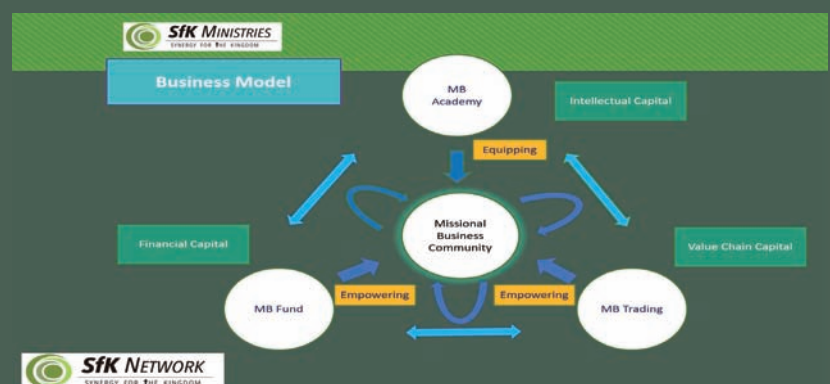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메데이로스는 이주민선교를 위한 실용적이고 성경적인 지역교회 성도 훈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교회의 모든 성도는,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디아스포라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 ②성도들이 먼저 손 내밀어 디아스포라를 교회로 초청하고 격려하고 데리러 가도록 가르치라. ③디아스포라를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라. ④학교 또는 활동 모임에서 당신 자녀의 디아스포라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힘쓰라. ⑤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원들(집, 전화, 차,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디아스포라 친구를 축복하라. ⑥기회가 될 때마다 적절한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라. ⑦이미 알던 사이의 디아스포라와 대화를 시작해보라. ⑧생일파티, 결혼식, 기념일, 여행 등을 지혜롭게 기회로 삼아라. ⑨인근을 비롯하여 세계 방방곡곡의 디아스포라와 교제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마음을 열라.

본서에서도 거듭 언급되고 있듯이, 이주 혹은 디아스포라의 추세는 우리 앞에 처한 선교학적 기회들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뜻한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지상명령, 즉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21세기의 특별한 인구학적 현실에 적용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를 통한 디아스포라 선교이자 마태복음 28:19~20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총체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klife.org](mailto:info@sfk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로잔디아스포라 카탈리스트 샘 조지 박사

— 기독교 맥락에서 GO와 SEND의 의미는 무엇인가?

샘 조지 박사(이하 샘): GO와 SEND는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전제하는 용어로,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여기서 저기로의 이동'을 가리킨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선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용어로 적용하여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도 했다.

한편, GO와 SEND 외에도 COME과 RECEIVE라는 또 다른 방향의 표현이 있다. 이는 단어 그대로 '가고 보내는' 것과 반대로 '오고 받는다는' 의미이다. 누군가 먼 곳에서 출발하여 내 근처에 도달하는 것을 COME이라

하듯, COME은 GO와는 달리 이동 없이도 상대와 나의 거리가 좁혀진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와 가까워지는 것이 COME-RECEIVE인 것이다. 그러나 내 곁에 가까이 온 이가 선교의 주체이든 선교의 대상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잠재적) 선교사라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여전히 GO-SEND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현대 선교운동은 GO 패러다임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으며, 20세기 후반의 선교 추진력은 SEND 패러다임에서 비롯되었다. 선교 관련 저술은 GO-SEND를 기반으로 정교한 신학과 선교학을 발전시켰



샘 조지 박사(Dr. Sam George)  
Catalyst of the Lausanne Movement,  
Director of Global Diaspora Institute  
at Wheaton College BGC

지만, COME-RECEIVE의 선교 패러다임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교활동이 서구중심 사고에 사로잡혔고 이주자를 선교의 가능성에서 배제했다. 또한 서양 제국주의 확장에 성경적 정당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선교 문헌을 일방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편견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했다.

—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샘: 사도바울이 선교를 서쪽으로 선회한 이유는 마케도냐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호소에서 비롯되었다(행 16:9). 마케도냐 사람의 오라는(COME)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가는(GO) 선교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선교의 GO 모델이 COME 모델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GO만의 접근 방식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이며 호전적이게 된다. 이는 GO-SEND 패러다임이 주로 단방향 및 일방적인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의 COME-RECEIVE 선교 패러다임에는 △환대 △이민자 교회 △디아스포라 선교 △난민 사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선교가 '가는 것'만이

세계적 이주현상은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던 선교적 사명과 기독교 신앙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는 21세기 기독교 맥락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선교 용어 'Go'와 'Send'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GO와 SEND라는 용어는 사고의 본질적 편견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함의에서 더 나아가 '양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교는 더 이상 서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로잔디아스포라의 카탈리스트인 샘 조지 박사(Dr. Sam George)와 대담을 나누었다.

▼ 샘 조지 박사가 소장으로 재직 중인 휘튼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 MMTS

### 심화과정 4기

커리큘럼 : 단일문화권에서의 다문화 사역 / 상황화 모델과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 이주민 환대와 화해사역 / 정책의 씨줄과 선교의 날줄 / BAM과 통전적 선교 / 도시선교와 유학생선교 / 타문화와 타종교 /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

- ✓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로잔 디아스포라 글로벌 클래스 룸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 ✓ 클래식 과정을 마친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훈련은 대면 및 비대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 수료 후 IC(국제문화교류지도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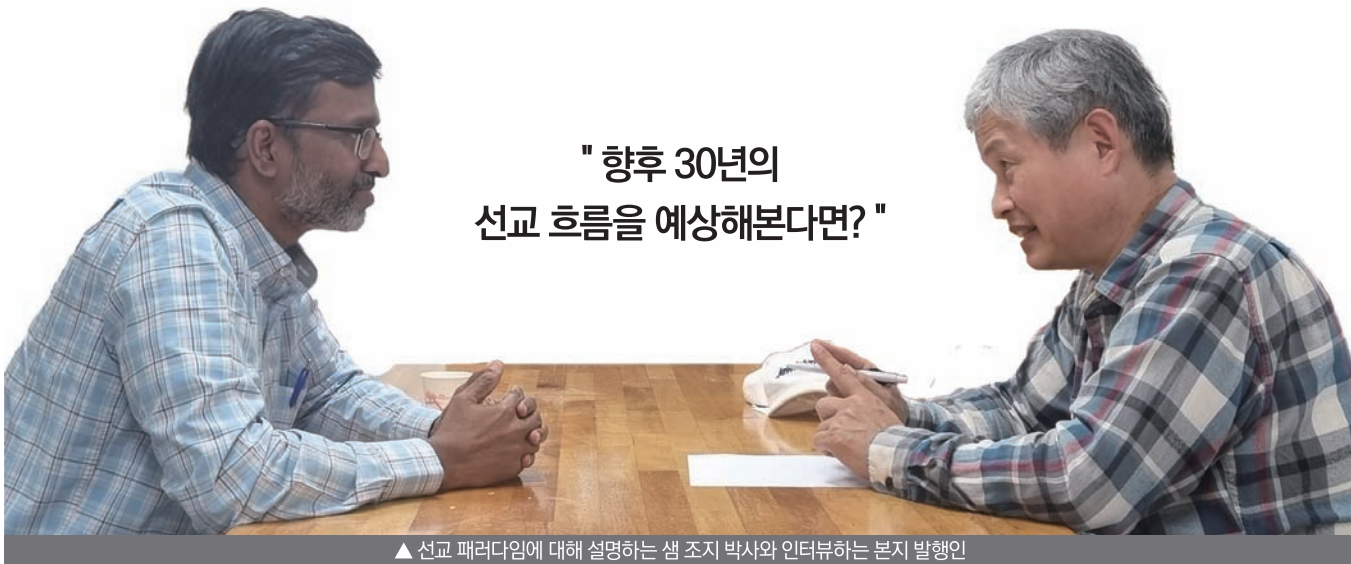
- ✓ 훈련기간 **2022. 10. 17 ~ 12. 5**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 장 소 \_ 안양 새중앙교회 선교관
- ✓ 훈 련 비 \_ 100,000원
- ✓ 입금계좌 \_ 464-910007-22804 위디선교회

문의 : 최현주 선교사 010-4688-3816 /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https://forms.gle/RUU18rDbdkuB1tN7>







## "향후 30년의 선교 흐름을 예상해본다면?"

▲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는 샘 조지 박사와 인터뷰하는 본지 발행인

아니고, 또한 세계의 특정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 최근 남반구 교회의 선교적 약진이 눈에 띈다.

**샘:** 남반구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선교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양하게 연결될 때 더욱 탄력을 받는다. 다국적 협력이 그 어떤 선교전략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세계(Majority World) 선교와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지에서 기독교가 눈부시게 성장하였고, 선교흐름은 역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과거에 선교대상지였던 나라들, 예컨대 한국·필리핀·중국·인도·케냐·싱가포르·나이지리아·브라질과 같은 나라가 선교사 파견 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 세계의 많은 이주민들이 고국을 포함한 각지로 나아가 대위임령에 응답하고 있다. 일부 선교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역파송' 개념으로 설명하며, 유럽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그 실례이다. 비서구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하여 이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민을 포함한 모든 수단(교육·직장·안전상의 이유 등)이 동원되고 있다. 마치 서양 선교사들이 지난 2세기 동안 선교지로 향하기 위해 식민지 제도에 편승했듯이 말이다.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히 선교 방향을 바꾸는 것 외에도 고착되었던 패권적 성향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 GO와 COME 패러다임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은 권력, 돈, 훈련, 지배 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결국 단일적이고 단방향적이었던 기존의 방식을 뒤로 하고, COME-RECEIVE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졌다.

### — 향후 30년의 선교 흐름을 예상해본다면?

**샘:**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 최소한의 교차문화적, 최대한의 동일문화권의 선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곧 현지인에 의한 현지선교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온 (잠재적) 선교사를 수용하는 패러다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19세기에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이 미얀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현재는 수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들 중 9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으로 온 미얀마인들은 선교단체에 의해 파송되거나 교회로부터 지원받아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군부 쿠데타와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온 난민으로서 그저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피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미국에서 거주하며 자신을 선교사로 여기거나 전도를 목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효과적인 선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경이나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기독교 신앙을 몸소 주

변에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기도 한다. 선도적인 선주민들은 이러한 미얀마 난민들의 선교활동에 도전받고 있으며,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곁으로 온 이들을 (잠재적) 선교사로 수용할 때, 새로운 선교 활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주민에 의한 선교가 앞으로의 선교 패러다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의도와 상관없이 출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이주는 역이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표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신이 가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당신이 있던 곳으로 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교역하고, 여행하고, 미디어를 소비하고, 분쟁하고, 외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으로 나타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우리의 종교적 풍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다. 글로벌 초연결과 초이동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의 맥락을 돌아보고 다시금 구성하는 행위는 불가피하다. 다중심주의를 향한 관점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선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흘러가는 양방향의 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주의를 따라야 할 때이다. (정리 문창선)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 애굽의 총리가 된 노예 디아스포라 요셉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Dr. Tereso Casino

글

사회 최하층인 노예가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선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인류 역사상 노예 디아스포라에게 이러한 일을 가능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창 41:40)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이자 가족의 후원자가 되었다.

###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고찰

노예에서 지배자가 된 요셉의 신분 변화는 삶의 불행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요셉의 역경은 기회로 바뀌었다. 그는 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던 형제들이야말로 요셉의 미래를 감지하여 동생을 미워했던 것이 아닐까?(창 37:8)

요셉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거룩한 일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공동체(이스라엘 백성)가 출현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곧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창 37:10)라고 말한 대목에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내다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는 가운데 그 꿈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창 37:11). 그 꿈은 훗날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스스로 엎드렸을 때 정말로 실현되었다(창 44:14).

###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위한 통찰

노예제도는 형태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구원과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요셉은 안전한 가족의 품에서 노예제도의 세상으로 던져졌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젊은 디아스포라 노예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인생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셉에게는 나쁜 일이 순하게 일어났다. 그는 고향에서 쫓겨났고, 가족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정상적인 삶을 빼앗겼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매번 시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고통과 투쟁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고,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애굽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노예 디아스포라에게 수반되는 폐해와 상관없이, 요셉의 시련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여정은 그의 형들이 요셉의 잠재력을 질투하게 만든 두 개의 꿈에서 시작되었다. 형들은 요셉을 조롱하면서 그에게

대항할 음모를 꾸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창 37:19~20) 계획대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성경은 도움을 청하는 한 청년의 외침이나 정서적 고통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요셉이 낯선 사람들에게 팔려갈 때조차 묵묵히 순종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요셉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호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39~45장에는 요셉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요셉이 꿈을 바르게 해석한 후, 바로는 요셉의 삶을 주관하는 영적 중심을 알아채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9)고 말한다.

요셉의 노예 신분은 전략적인 목적, 즉 히브리 국가의 시초이자 장차 메시아가 나올 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이었다. 요셉의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은 의도와 지향성에 있어서 대단히 선교적이다.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는 노예로 살았던 자신의 처지가 '사명'이란 함의를 지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서 일어

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보다 앞서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창 45:7)

마지막으로, 용서는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요셉은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지만,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동요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창 43:30) 성경에 기록되었듯 요셉의 통곡하는 소리는 곧 용서로 이어질 것을 예상케 한다(창 45:2).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라고 말하지만, 형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 감히 대답하지 못한다(창 45:3).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한다(창 45:4~5).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모두 기뻐한다.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식솔을 초청하고,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약속한다(창 45:16~18). 이처럼 인생 최악의 시기, 또는 신뢰와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과 화해가 일어난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http://www.sansomang.org)  
 031-468-9191



#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프라닐 집사 (필리핀)

Dea. Franil (Philippines)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증할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남수리가오주 디나가트섬(Dinagat Island)에서 왔으며, 세 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2년 전에 저는 한국의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약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 계약연장 제안을 받았는데, 도합 5년 정도를 더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3개월간의 휴가를 받게 되어 필리핀에 가족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휴가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 암미의 국인교회(암미선교회, 김영애 선교사)에 출석했습니다. 암미선교회는 외국 인근로자,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며 선교하는 선교단체이자 외국인교회입니다. 또한 주일마다 5~6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다국적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적 지식을 가족에게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가족들의 믿음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입니다. 필리핀 국경은 폐쇄되었고 한국행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란 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고용주가 저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을 품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고향의 지역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해줄 수 있냐고 물으시며, "셀리더가 잘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암미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공부 첫날, 아이들을 포함해 스무 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경공부를 할 생각에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관심과 열정에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모임이 마치자 한 멤버가 제게 다가와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담임목사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셀그룹 리더를 맡아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셀리더가 다른 셀그룹으로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셀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큰 기쁨을 누렸기에 그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에 봉쇄조치가 시행되었고, 교회 모임인원도 성도의 50%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을 오전반과 오후반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후 예배에서 두 번이나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게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기도모임을 가지며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도 초청을 받아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계속하여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다시 가기 전, 셀그룹 멤버들을 집에 초대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게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남자아이를 주셨고, 새로운 사업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업은 번창하고 있으며,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게 주신 기회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2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게 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을 필리핀 형제들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의 일부분임을 압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무척 그리지만, 주님의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To-Plate

천혜지역 호주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글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의 2장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을 요약하였다.

'디아스포라' 개념은 근자에 소개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디아스포라(이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역동성과 맞물려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상했다. 현상 연구 전문가인 제후 한실(Jehu C. Hanciles)은 "현대 주요 종교는 역사적으로 이민과 흩어짐에 힘입어 그들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으며, 기독교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기독교의 확장은 한마디로 디아스포라와 함께 이루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음주의 기독교권과 로잔 디아스포라 이슈 분과(GDN) 및 국제 선교단체(Wycliffe, Inter-serve, OMF 등), 그리고 각종 선교대회에서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활동은 꾸준히 증폭되어 왔다. 특별히 2004년 태국에서 열린 로잔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7개 지역의 디아스포라 대표자들이 모여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비롯한 6개 항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디아스포라 현상은 세계 복음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 되었고, 지난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륙

별 디아스포라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세계 포럼이 개최되었다.

필자가 소속된 단체나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몇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동안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 발표된 내용들은 선교 동원 전략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학적·선교학적 통찰을 다루는 글들이 출판되고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니엘 그루디(Daniel Groody)와 이민 신학

그루디(Groody)는 노틀담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의 부설기관인 '라티노 영성과 문화 센터(Center for Latino Spirituality and Culture)'의 소장이며, 최근 이민에 관한 신학적 관점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남미에서 일어나는 이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해당 지역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루디에 의하면 이민 신학에는 3단계가 있는데, ①목양적 단계(Pastoral level, 이민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②영적인 단계(Spiritual level, 이민자 자신이 이민에 대해 어떠한 영적 관점을 가졌는지) ③신학적인 단계(Theological level, 위의 두 가지를 통합한 전체적인 그림으로써 신학적 해석의 단계)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4가지의 신학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듯이 이민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이 회복되어야 한다. ②성육신하신 말씀(Verbum Dei)을 통한 화해, 즉 한 몸의 연합과 용서가 이민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Missio Dei)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하나님 나라의 비전(Visio Dei)이 국경의 차별 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루디는 특별히 가톨릭 신학의 관점에서 이민을 성만찬 의식과 동일시하여 "성만찬의 구조와 이민의 과정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떡을 떼는 행위-이민자들의 육체적인 찢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흘림-이민자의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민자들의 삶과 죽음" 등의 대응으로 성만찬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한편, "성만찬을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보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민의 문제가 더 이상 사회·경제·정치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존엄성과 관련한 신학적 논의의 틀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 의식(The liturgy of the Eucharist)은 모든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동체 추구의 장이요, 이방인인 이민자의 눈 속에서 형제자매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는 장이 되어야 함을 단언한다.

## 초대 교부시대의 이민: 가톨릭 신학자 피터 팬(Peter C. Phan)의 견해

베트남 출신 신학자 피터 팬(Peter C. Phan)은 그의 논문에서 교부시대의 이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규정했다. ①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규모의 이민을 경험했다. ②이 이동은 교회의 선교활동과 맞물려 활

성화되었다. ③이동의 이유는 종교적·정치적 박해로 인함이었고, 동시에 무역을 통한 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전파였다. ④이 이동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⑤다른 이동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심의 이동이었다. ⑥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서 장기 정착을 통한 역동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⑦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기득권 없이 국외자로 취급되었다. ⑧여타 이민자처럼 지역 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했다. ⑨동시에 그들은 종교적인 실천에 있어서 주위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⑩기독교 디아스포라는 역사 속에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인간의 이동 패턴 그 자체이다.

팬(Phan)은 초대 교부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익명의 문건을 분석하여 현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학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의 언어, 관습 등에 최선을 다해 동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종교적 세계관과 도덕성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 따라서 이민 신학은 △통전문문화적(transcultural) △상황화 △교차문화적 △반문화적(counter-cultural, 네슬리 뉴비긴의 견해이기도 함)이어야 한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 2022 해외·이주민 선교대회를 돌아보며...

## 할렐루야교회 이주민팀 윤성구·최이선 집사 기고

▼ 할렐루야교회 2022 해외·이주민 선교대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6~7)

할렐루야교회 2022 해외·이주민 선교대회가 'Together!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할렐루야교회 선교대회는 올해 특별히 이주민선교에 큰 무게를 두었다. 이는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곁에 찾아온 이주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환대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준비된 대회였다.

이번 선교대회는 지난 1월부터 이주민팀(담당장로 장주옥·팀장 김한준 안수집사)과 해외선교팀(담당장로 한동업·팀장 이준호 안수집사)의 연합회의를 통해 준비되었다. 이주민팀은 선교대

회 진행 가운데 화요중보기도, 금요영성집회, 주일예배 특송을 담당하였다.

화요중보기도 모임에서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20여 년 전부터 경기도 광주에서 이주민선교를 하고 계신 이승준 선교사님(광주외국인근로자쉼터교회 담임)께서 설교("다가온 땅끝", 행 1:8)를 전하셨다. 말씀을 통하여 이주민 선교현장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참석한 중보기도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었다.

금요영성집회는 1992년부터 이주민선교에 헌신해오신 문창선 선교사님(위대국제선교회 대표)이 한국교회 이주민선교 현황과 할렐루야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 7:9~19)을 전하셨다. 이날 위대선교회 카메룬 공동체 찬양팀의 영성 넘치는 찬양, 성경말씀 다국어 봉독(세라·남궁미나·아이린), 이현길 집사님과 쓰라이쓰러 집사님(캄보디아)의 간증은 실시간 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었다. 이외에도 이주민

팀과 협력하는 15개 이주민단체의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일예배 특송은 쓰레이 몸 자매와 쏭포우 형제(캄보디아)가 '주의 크신 사랑'을 불러 청년부에게 특별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선교대회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되었고, 이주민선교를 향한 교회의 비전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지난 1월 첫 연합회의를 기점으로 매일 저녁 9시에 지속적으로 기도시간을 가졌다. 이주민팀의 협력기관 기도제목과 선교대회, 그리고 이주민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기도로 대회를 준비하다가 대회 주제와 주제 성구를 정하던 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연합회의에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어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른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해외선교팀 주관 선교훈련학교를 수료한 성도분들은 인근 이주민교회에서 실습으로 이주민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국적, 생김새, 문화가 달라도 서로 애찬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경험을 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우리와 함께 교회 이주민사역의 기초를 다졌던 이주민팀의 오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움마저도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어 주셨다. 장로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지!

소망이 있다면,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라도 찾아와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문턱 없는 교회가 되기를 그려본다.

또한 이번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할렐루야교회가 이주민선교기관에 끊임없이 '기도 후원'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주민선교 플랫폼'으로써 이주민 천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꿈꾼다.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 허드슨 테일러 (Hudson Taylor)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http://www.jvmikorea.org)



## 서울권역

##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 수도권역

##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일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순복음생명성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타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성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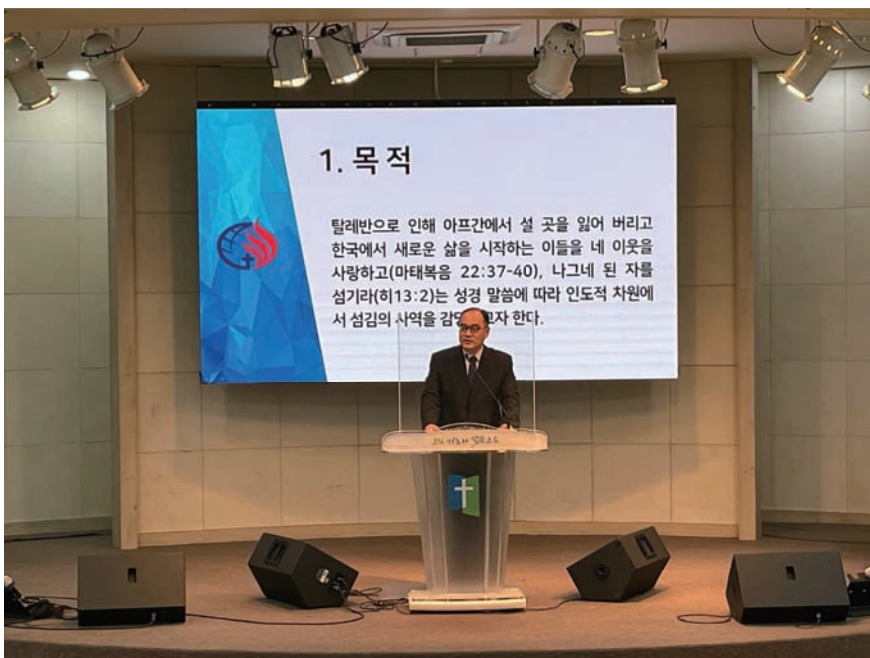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 전문인사역자 양성을 위한 바리스타 수업 (3면 참조)

▼ 울산 지역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이주민을 위한 선교대회&amp;세미나 현장 (4면 참조)



▼ GMS이주민선교연합회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6면 참조)



▲ 왼쪽부터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총무 문대원 목사, 의장 유기성 목사,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 공동대회장 이재훈 목사 (2면 참조)



▲ 할렐루야교회 2022 해외·이주민 선교대회 (10월 9~16일, 13면 참조)

▼ KWMA 주관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10월 31일~11월 2일, 6면 참조)

The 21st Korean Mission Leaders' Forum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2022**

날짜 | 10.31일 오후 2시 ~ 11.2수

장소 | 가평 필그림하우스

선교 메시지 | 최성은 목사 (분당지구총교회)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주제 | ① 교회와 선교단체의 시너지  
② 교회중심의 선교 운동  
③ 이주민과 글로벌 네트워크  
④ 다음세대(2030세대)의 동원

교회와  
같이가는  
선교